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은 25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을 말한다. 한글개역성경에는 26절 처음에 ‘이는’이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지만, 원문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히나(iva)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다. (1) “이는 그가 그것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2) “(이는) 그가 그것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존귀한]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 “(이는) 그것이[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한 목표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1.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목표이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은 죄 없고 깨끗한 교회, 흠과 결함이 없는 교회,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개인의 거룩함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모임인 교회의 거룩함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과 모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사람들의 범죄로 변질되고 악화되었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심히 사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아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표를 정하셨다. 그는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그 목표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2. 하나님의 목표는 성취되었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표는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짊어지셨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였던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하였다(요 1:29).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人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마 20:28).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혹은 대속사역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15:3) 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요 13:10).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중생(重生)의 씻음이다. 바울은 디도서 3:4-5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다. 고린도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거룩하여졌고](완료분사) 성도

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6:9-1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동성애자]나 남색하는 자[동성애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씻음받았고] 거룩함과[거룩해졌고](과거형)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완료분사].” 이것이 법적인 거룩이다.

또 사도 바울이 밝히 증거한 칭의(稱義)[의롭다 하심]의 진리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3:21-24,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진리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 목표, 즉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설립은 모든 믿는 자들과 그들의 연합과 모임인 교회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한 법적인 거룩과 칭의의 진리이다.

3. 이 거룩과 의를 실제로 나타내어야 함

그러나, 비록 이 거룩과 의가 법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 거룩과 의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화이며 바른 교회의 건립이다.

에베소서 4:11-13,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28-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온전함에 있다.

거룩과 의를 어떻게 실제로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불완전하고 흠과 부족이 있고 실수와 연약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위해 남아 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은 회개치 않은 자들을 위해 남아 있다.

이사야 1:15-20,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악한 일]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억울한 일을 들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

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마태복음 3:8-10,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누가복음 13: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둘째,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내버려두면 온 덩이에 퍼진다. 고린도전서 5:6, “너희의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6,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므로 개인은 작은 죄라도 회개해야 하고 교회는 작은 오류라도 제거해야 한다. 교회의 권징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권징받는 자가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셋째, 우리는 특히 선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마태복음 5:39-44, 4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

회를 모욕하고)(전통본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에베소서 4:29-32,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救贖][몸의 부활]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3:13-18,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도는 선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개인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함을 실제로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는 어제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 선한 자들이 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